

## 성인 영어학습자의 세계영어에 관한 인식과 영어 말하기 불안\*

김은영 (아주대학교)

김현옥\*\* (아주대학교)

Kim, Eun-Young and Kim, Hyeon-Okh. 2018. Korean adult learners' perception towards World Englishes and its relation to speaking anxiety.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8-1, 99-118.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EFL adult learners' perceptions about World Englishes and their relationship to speaking anxiety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1) What attitudes and perceptions do Korean EFL adults have toward World Englishes? and how do background variables influence their perceptions?; 2) To what extent do the levels of speaking anxiety vary with different interlocutors, i.e., native versus non-native speakers and relate to the amount of contact; and 3) How their perceptions toward World Englishes affect their language anxiety?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a total of 110 adult EFL learners. Results indicate that 1) Korean adult learners have rather positive attitudes toward World Englishes, endorsing different varieties as a valid means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2) their exposure to World Englishes positively influences their attitudes toward different varieties of English, and 3) they tend to experience higher levels of anxiety when they interact with native speakers than non-native speakers in English, and 4) their perceptions toward non-standard English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s of language anxiety. Th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ELT teachers and professionals in materials development and testing servic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value and status of World Englishes to cultivate the Korean learners'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ey Words:** World Englishes, lingua franca, standard English, speaking anxiety, affective factors

---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제1저자(김은영), 교신저자(김현옥)

## 1. 서론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가나 민족들 간의 공용어(lingua franca)로 쓰였던 바와 같이, 영미권의 모국어로 출발한 영어는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제적인 교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영어를 공용어나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영어 모국어 화자의 수를 넘어서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화자들의 수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영어의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Crystal 1997). 즉, 더 이상 영어를 영미권의 모국어 화자의 언어로만 제한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하는 누구나가 그 소유권을 가지며, 지역적 특성을 가진 인도영어, 필리핀 영어 등을 영어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영어의 성격과 현상을 대변하듯, 복수형의 의미를 포함한 세계 영어(World Englishes), 공통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lingua franca, 이하 ELF), 전 세계인의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영어를 지칭하는 지구어(English as a Global Language)와 국제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이하 EIL) 등의 용어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은 국제적인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세계 영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문화와 영어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국지적 특색이 있는 영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고 영미권의 표준영어에 대한 선호도와 의존도가 타 모국어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윤교찬과 이동배(2011)가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은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는 영어가 모국어인 내부권역에서 제공하는 표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원어민 교사와 현지 어학연수 등의 영미영어를 표준으로 하는 교육 방법을 고집하는데 기인한다. 한국은 영어를 EFL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영어교육과정의 태동기에 목표어로 채택된 미국영어가 학습과 평가 위주의 제도적 환경에서 준거로 제공되어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한국인의 영어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교육·사회적 전통은 영미권의 영어를 우위에 두고 표준형과 다른 형태의 영어를 오류나 변종으로 지칭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해왔다.

한편,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이분법적 시각은 상대적인 인식의 차이이며, 실제 모국어화자 간에서도 발음, 어휘, 문법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하고 이상적인 표준영어 사용집단을 전제하여 의사소통 성공의 부담을 비 원어민에게 지우는 구조이다(Levis 2005).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인한 ‘우등-열등,’ ‘표준-이탈’의 양가적 시각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습자들이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어를 좀 더 주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영어의 학습과 사용에 있어서의 화자의 정체성을 넘어선 균형적인 언어사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 원어민-비원어민의 이분법적 구조로 부터 탈피하여 개인의 언어 정체성을 넘어선 언어의 사용 양상을 이해할 때, 원어민-비원어민의 이분법적 시각에 기인한 심리적인 불안과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즉,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불안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말하기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비원어민들은 원어민보다 같은 비원어민과의 대화를 쉽게 느끼며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며(Lee and Yeh 2004), 원어민화자와의 대화에서는 오히려 영어불안이 높아진다(Woodrow 2006)는 연구 결과는 다양한 세계영어에 대한 이해와 노출을 통해 언어와 화자를 동일시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 필요에 의한 공용어 사용이라는 세계영어에 관한 인지적, 정의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교사(강성숙, 이상기 2012, 심영숙 2015, Ahn 2014, Choe 2007)와 대학생(송경숙 2011, K. Choi 2007, S. J. Choi 2011, Yoon 2007)에 집중된 선행 연구와 차별화하여 학업 외에도 직장과 취미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어권 화자들에게 노출된 성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표준영어와 다양성 그리고 그 소유권에 관한 세계영어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과 원어민과 비원어민에의 노출 빈도 등의 개인변인이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 성인 영어학습자의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 인식은 학습자의 개인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국인 성인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불안은 원어민-비원어민의 대화 상대 그리고 소통 빈도 등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인 성인 영어학습자의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영어 말하기 불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세계어로서의 영어

Kachru(1985)는 ‘World Englishes’라는 다원적주의적인(pluricentric)접근법을 통해 사회언어학적, 사회문화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어의 전파현상을 설명한다. Kachru는 영어 사용 국가들을 영어 모국어 내부권역(inner circle), 영어가 공용어 또는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외부권역(outer circle), 그리고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확장권역(expanding circle)으로 분류하였다. 영국, 미국, 호주 등의 영어 모국어 내부권역은 외부권이나 확장권역 국가들이 사용하고 학습하는 영어의 표준을 제공(norm-providing)한다. 반면, 과거 내부권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등의 외부권역 국가들은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 사용의 환경에서 영어의 지역적 변이형들을 산출시켜나가면서 영어의 표준을 개발하는(norm-developing)지역들이다. 이들은 영어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외부권역 국가들은 모국어와 영어를 병용하면서 토착화된 형태의 인도영어(English), 싱가포르 영어(Singlish), 필리핀영어(Finglish)등의 영어변이형을 파생시키며 세계영어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주요한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국제적인 소통을 위한 영어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공교육을 통해 내부권역이 제공하는 표준에 의존한(norm-dependant) 확장권역 화자들로 자신들의 모국어의 발음, 어휘, 문법 등의 영향을 받아 지리 문화적 특색을 지닌 영어가 파생되었는데 한국식 영어(Konglish), 일본식 영어(Japanish)등이 그 예이다.

세계영어에 대한 공론은 영어 사용자 다수가 외부권이나 확장권역 화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영어 내부권역 사용자가 된 상황에서 내부권역의 영어만을 표준 영어로 여기는 것은 전통적인 모국어화자 모델(native-speaker-model)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 논쟁은 내부권역의 원어민화자가 사용하는 영어형태를 표준으로 정하고 표준영어만이 교육과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Quirk 1985)과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더 이상 영어 표준화의 통제권을 상실했으며 복수 형태의 세계영어와 맥락을 같이하여 나름의 정체성을 지닌 지역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영어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Kachru 1985)으로 대변된다. Sifakis(2004)는 이 논의를 체계화, 표준화된 기준(norm)으로 언어를 접근하는 관점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으로 이해하며, 국가 간의 소통을 넘어서 문화 간의 소통을 위한 영어(English as an intercultural language, EICL)를 위한 균형적인 접근과 교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관련하여 언어의 학습과 사용에 있어서의 문화의 귀속성의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점차 일원적 의미의 '표준 영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원론적 접근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야 한다는 주장(Jenkins 2006)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사용 또한 지속적으로 그 형식, 표현, 문법 면에서 한국의 문화나 관습에 맞게 토착화나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어의 특성과 낱앙스가 반영된 한국영어(Korean English)의 Lee(2007)는 사회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한국적 특색을 지닌 영어가 실질적으로 다른 영어 사용자에게 이해가능(intelligible)하다면 이 또한 현지화된 영어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영어의 문법적 특징들을 연구한 Kim(2006)은 WE나 ELF 사용자들의 단순화된 영어 문법이 의미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다양한 세계영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영미권의 영어가 표준영어로서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한편, 한국인들은 북미식 영어 발음에 대한 친근함과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영미권이나 뉴질랜드, 호주 등의 내부권역 국가들의 영어발음 이외의 발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원어민 발음에 대한 이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류수련(2010)은 뉴욕과 한국의 성인 영어 학습자들을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미국영어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다양한 발음을 지닌 세계영어에의 노출을 경험하게 된 후 자신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영어발음과 세계영어 인식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K. Choi(2007)는 관련 강의를 수강하여 세계영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대학생 집단은 세계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 비해 미국영어 혹은 영국영어와 표준영어를 동일시하거나, 원어민화자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영어의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영어 학습에 있어서 비모국어 강사보다는 영어 모국어 강사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Yoon(2007)의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세계영어의 위상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영어의 모국어화자인 내부권역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이를 학습모델로 설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Oh(2011)는 미국, 말레이시아, 한국식 영어 발음에 대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청취력과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말레이시아 발음보다는 미국과 한국식 발음에 대한 청

해도가 높았으며 미국식 발음을 가장 높게, 말레이시아 발음을 그 다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필리핀 등의 외부권역이나 중국어 등의 확장권역에 비해 미국과 호주식 발음 등의 내부권역의 표준영어에 대한 친숙성과 선호도를 재차 확인한 결과이다. 세계어에 관한 유사한 양상을 보고한 Tokumoto와 Shibata(2011)는 말레이시아, 일본과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발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학습자들은 말레이시아 학습자들에 비해 모국어가 섞인 영어발음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송종민(2007)은 이러한 태도의 차이에 대하여 외부권역과 확장권역에서의 영어의 기능과 표준형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 기준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은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오랜 기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지역화된 특성을 찾기 어렵고, 공교육을 통해 영미권의 영어를 기준으로 교육과 평가를 받아왔기에 표준화된 영어의 가치와 추구가 더욱 강화된 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외부권역에서는 다민족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영어가 사용되면서 자국화(nativised)된 형태가 생겨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영어의 구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심영숙(2015)이 지적하듯이,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은 세계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미권의 영어형을 선호하고 다른 이형이나 그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어에 대한 인식이 다분히 피상적인 수준이며, “관념적 ‘인식’과 실제적 ‘수용’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함”(심영숙 2015: 155)을 보여주는 것이다. 손흥동(2011)도 서울소재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한국식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영어소유권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는데, 세계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영어 다양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어에의 노출과 세계어의 실질적인 이해와 수용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2.2. 대화상대에 따른 영어 불안

MacIntyre와 Gardner(1989)는 언어 불안(anxiety)이란 화자가 제2언어나 외국어로 말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대 화자와 영어 대화 시 느껴지는 위축되고 편안하지 않는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Horwitz(2001)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불안한 감정이 화자의 영어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Woodrow(2006)는 비영어권 화자들의 불안이 말하기 수행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어 외국어 화자들의 가장 큰 불안 상황은 원어민들과 소통해야 할 때로, 이런 현상은 다른 문화권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유교문화 화자들에게서 두드러짐을 밝히고 있다.

유영미와 표경현(2009)은 원어민 회화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불안요인을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부귀인과 동료나 교사의 평가, 수업방식 등을 외부귀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설문과 심층면접의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의 갑작스런 질문에 영어로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신이 문법적 오류를 범하거나 영어 발음에 자신감이 없을 때 원어민 교수자가 학습자를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심리적 불안이나 긴장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교수자가 진행하는 수업에 비해 원어민 교수자가 진행하는 회화수업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드러내지는 않아 교사변인으로서의 원어민교수자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의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대화의 양상을 분석한 Lee와 Yeh(2004)에 따르면, 비원어민들은 원어민들과의 대화보다 비원어민들과의 영어 대화를 더 쉽게 느끼고, 더욱 효과적으로 대화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원어민간의 대화에서 활발한 의미교섭을 위해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중복(overlapping)과 방해(interruption)가 더 자주 관찰되는 반면, 원어민과의 대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원어민에게 맡기고, 자신의 발화는 짧고 간단한 응답이나 맞장구(back-channel) 등으로 일관하며, 말하기 보다는 주로 듣는 데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Levis(2005) 또한, 비원어민과의 대화가 원어민과의 대화보다 더 많은 의미교섭과 수정된 언어출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며 비원어민 화자간의 소통이 영어 학습에 더욱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학습자들은 비원어민과의 대화 시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그러나 정확성은 다소 낮은 중간언어를 생산하는 편이며, 대화 상대여부는 학습자들의 유창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타이완 등 각각 모국어 배경이 다른 35명의 비원어민화자간의 영어대화를 분석한 Kim, Chung 그리고 Lee(2016)의 연구도 비원어민간의 대화에서 세계영어 사용자로서 표준영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의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대화 상대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의 학생들과 학위과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성인 영어학습자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과 표 2는 설문 참여자들의 배경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변인	구분	인원	백분율
성별	남자	82	57.1
	여자	60	42.9
연령	20대	47	33.9
	30대	35	25.0
	40대	46	32.9
	50대	12	8.6
직종	학생	35	25.0
	직장인	105	75.0
계		140	100.0

성별로는 남성이 57.1%, 여성이 42.9%로 남성이 14.2% 많았으며, 직장인의 비율이 학생에 비해 세 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33.6%, 30대 25%, 40대 32%, 50대 8.6%로 전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표 2. 영어사용 배경변인

변인	구분	인원	백분율
해외거주경험	유	43	30.7
	무	97	69.3
영어사용 빈도	매일	23	16.4
	주 1-2회	21	15.0
	월 1-2회	18	12.9
	거의 없음	78	55.7
영미권 외 외국인 소통 빈도	매일	13	9.3
	주 1-2회	15	10.7
	월 1-2회	22	15.7
	거의 없음	90	64.3



	영미권	64	54.7
소통	아시아권	51	36.4
외국인	유럽	25	17.9
국적	아프리카	8	5.7
(다중응답)	중남미	3	2.1
	기타	16	11.4
	직업상	66	47.1
	친구, 이웃, 동료	37	26.4
영어 사용 환경	웹팔, 채팅	2	1.4
	클럽 및 동아리	6	4.3
	기타	29	20.7

해외거주 경험이 없는 사람이 69.3%로 거주경험이 있는 30.7%의 두 배 이상이다. 자신의 영어능력을 중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22%와 15%정도였다. 전체 중 영어를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6.4%로, 그 빈도는 ‘주 1-2회’ 15%, ‘월 1-2회’ 12.9%선이였다. 영미권 이외의 외국인과의 소통하는 경우, ‘월 1-2회’의 접촉 빈도가 15.7%였고, ‘매일’이 9.3%, ‘주 1-2회’는 10.7%로 나타났다. 이들이 평소 교류하는 외국인은 영미권이 과반수이상이었고, 아시아권 35.4%, 유럽권이 17.9%, 아프리카권 5.7%, 중남미권이 2.1%정도였다. 전체 중 직업상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47%)였고, 친구나 이웃, 동료 등이 26.4%등으로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74%에 해당하였다.

###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세계영어에 관한 성인학습자의 태도를 조사한 손흥동(2008)와 Sir(2010)의 문항과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을 분석한 Ahn(2012)의 문항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배경 설문은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해외 거주경험, 외국인 접촉빈도 등 배경 정보를 묻는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내용 설문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응답유형으로, 영어의 표준과 학습 모델, 다양성, 소유권 등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에 관한 항목 14개와 대화상대(원어민과 비원어민)에 따른 영어불안을 비교하는 항목 12개를 포함, 총 2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설문은 3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세계영어 14문항과 영어불안 12문항에 대해 각각

Cronbach's alpha 0.71과 0.89를 획득하여,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세계영어 인식

한국인 성인 영어학습자의 세계영어의 대한 인식을 학습의 표준모델, 영어의 다양성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3~표 5는 각 세부영역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빈도의 백분을 환산치,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로 정리한 결과이다.

표 3. 표준영어에 대한 인식 (N=140)

번호	내용	① <sup>a</sup>	②	③	④	⑤	평균	표준 편차
1 <sup>+</sup>	유창한 영어실력을 위해서는 원어 민과 같은 발음을 익혀야 한다	7.1	33.6	26.4	27.9	5.0	2.90	1.05
2 <sup>+</sup>	유창한 영어실력을 위해서는 문법적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9.3	36.4	30.0	21.4	2.9	2.72	0.99
3 <sup>+</sup>	영어를 배우는 최종 목적은 영어 원어민같이 말하는 것이다	15.0	37.1	20.7	22.1	5.0	2.65	1.13
4	영어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0.0	10.0	20.0	52.1	17.9	3.78	0.86
5 <sup>+</sup>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미권 국가로 언어연수를 가는 것은 최선이다	5.7	31.4	31.4	27.9	3.6	2.92	0.98
7 <sup>+</sup>	영어 학습에서 표준영어인 영미권의 영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5.7	17.9	30.7	38.6	7.1	3.24	1.02
8	영미중심의 영어교육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3.6	22.1	40.0	28.6	5.7	3.11	0.94

<sup>a</sup>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sup>+</sup>환산시 역코딩 대상

본 연구의 성인학습자들은 영어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고 영어 소유권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7번 문항의 응답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학습에 있어서 영미권의 표준영어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영어학습의 모델을 제공하는 교수자로서 영어권 모국어강사를 선호했던 K. Choi(2007)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그 편차가 1.01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개인마다 시각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영어의 다양성에 관한 인식 (N=140)

번호	내용	① <sup>a</sup>	②	③	④	⑤	평균	표준 편차
9	영어변이형들도 국제무대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0.0	7.9	20.7	57.1	14.3	3.78	0.79
10	영미권 영어외의 다양한 영어변이형들도 접해야 한다	0.0	13.6	19.3	55.7	11.4	3.65	0.86
11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0.0	4.3	14.3	55.7	25.7	4.03	0.76
12	나는 기회가 된다면 세계의 다양한 종류의 영어들을 접하고 싶다	2.1	15.0	21.4	43.6	17.9	3.60	1.02

<sup>a</sup>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표 5. 영어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 (N=140)

번호	내용	① <sup>a</sup>	②	③	④	⑤	평균	표준 편차
13 <sup>+</sup>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들만이 영어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19.3	55.7	17.9	7.1	0.0	2.13	0.80
14	영어는 특정 계층·국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언어라 주장할 수 있다	4.3	22.1	37.1	33.6	2.9	3.09	0.92
15	영어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0.7	3.6	25.0	59.3	11.4	3.77	0.72

<sup>a</sup>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sup>+</sup>환산시 역코딩 대상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성인학습자들은 다양한 영어형태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지니고, 국제무대에서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영어변이형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였다. 또한, 다양한 세계문화의 이해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전체의 81%, 다양한 종류의 영어를 접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60%를 차지하여 영어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계의 다양한 종류의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18%에 그쳤던 류수련(2010)의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준거로서의 영어에 관한 인식과 매우 다른 결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직장업무와 문화교류의 도구로서의 영어에 대한 다른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설문 참여자의 70% 이상이 영어의 소유권을 모국어 화자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에 찬성하고 있어, 내부 권역의 모국어 화자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부여했던 기존의 선행연구(K. Choi

2007, Yoon 2007)의 대학생들의 시각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가 학습이라는 제한된 영어사용 상황을 넘어서 직장의 업무와 친구나 이웃, 혹은 동호회 등의 취미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영어사용에 노출되면서 영어의 소유권에 대해 열린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항목에 따라 역코딩을 진행한 후 영역별 합산점수를 사용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해외거주 경험이 세계영어 인식에 미치는 결과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거주를 통해 실제적인 영어사용에 노출된 학습자의 경우 세계영어 인식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1.992$ ,  $p = .048$ ). 표 6은 참가자의 해외거주여부에 따른 차이를 세부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6. 해외거주경험 유무에 따른 세계영어 인식

세계영어인식	해외거주경험	<i>N</i>	평균	표준편차	<i>t</i>	<i>sig</i>
표준영어	있음	43	3.86	.76	1.350	.179
	없음	97	3.69	.62		
다양성	있음	43	3.98	.60	2.894	.004
	없음	97	3.67	.57		
소유권	있음	43	3.53	.54	-0.702	.484
	없음	97	3.60	.56		

해외거주 경험이 영어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접촉가능한 외국인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더 넓어 세계영어 인식이 당연히 높게 나타났으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대화상대자와의 교류가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류와 영미권 이외의 외국인과의 소통 빈도에 따른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어민과의 소통빈도가 높을수록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의 합산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반면, 영미권 외의 외국인과의 소통 빈도는 그 횟수가 높을수록 세계영어에 대한 이해가 유의미한 높은 결과( $F = 4.390$ ,  $p = .006$ )를 확인하였다.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비원어민과 매일 소통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소통하는 사람이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보다 세계영어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비원어민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영어사용에 익숙

할수록 세계어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결과는 영어교육의 방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 7. 외국인과의 소통빈도에 따른 세계어 인식

대상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ig
외국인	매일	23	3.57	.34	2.359	.074
	주 1-2회	21	3.59	.48		
	월 1-2회	18	3.41	.37		
	거의 없음	78	3.45	.40		
영미권외 외국인	매일	13	3.66	.41	4.370	.006 (4<1, 2)
	주 1-2회	15	3.64	.44		
	월 1-2회	22	3.50	.30		
	거의 없음	90	3.36	.38		

#### 4.2. 대화상대에 따른 영어 말하기 불안

말하기 불안은 원어민 혹은 비원어민과 영어로 말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대화상대에 따른 긴장, 불편 및 위축감 등의 심리적 요인 외에 문법 및 발음 오류 등에 대한 인식 불안을 포함한다.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대화상황에서 경험하는 영어불안을 비교하기 위해 항목을 병렬로 구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두 문항 간의 응답의 차이가 실제보다 증폭할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8은 대화 상대에 따라 말하기불안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 합의 평균을 환산하여, 원어민 영어불안의 평균과 비원어민 영어불안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인데, 비원어민보다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말하기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은 비원어민과의 소통보다 원어민과의 소통에서 더 큰 불안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대화상대에 따른 영어 말하기 불안 t검증 결과

대상에 따른 말하기 불안	평균	표준편차	t	sig
원어민	3.02	1.03	6.219	.000
비원어민	2.64	1.02		

표 9는 각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불안의 기술통계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 9. 대화상대에 따른 말하기 불안

번호	내 용	평균	표준편차	t	sig
16	나는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할 때 긴장된다	3.43	1.24	7.640	.000
17	나는 비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할 때 긴장된다	2.94	1.21		
18	나는 원어민과 대화해야 할 때 떨리거나 땀이 난다	2.75	1.20	4.918	.000
19	나는 비원어민과 대화해야 할 때 떨리거나 땀이 난다	2.46	1.08		
20	나는 원어민과 대화할 때 위축감이 든다	3.03	1.22	6.847	.000
21	나는 비원어민과 대화할 때 위축감이 든다	2.57	1.17		
22	나는 원어민과 대화 시 내가 문법적 오류를 범할까봐 말할 때 조심스럽다.	3.06	1.25	6.504	.000
23	나는 비원어민과 대화 시 내가 문법적 오류를 범할까봐 말할 때 조심스럽다.	2.66	1.18		
24	나는 원어민과 대화 시 내 발음을 못 알아 들을까봐 신경 쓰인다.	3.21	1.25	5.667	.000
25	나는 비원어민과 대화 시 내 발음을 못 알아 들을까봐 신경 쓰인다.	2.84	1.24		
26	나는 원어민과 대화할 때 빨리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든다.	2.66	1.25	5.742	.000
27	나는 비원어민과 대화할 때 빨리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든다.	2.39	1.18		

한편, 소통빈도에 따라 영어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외국인과 비원어민과의 소통빈도에 따라 학습자의 영어불안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외국인과의 소통빈도에 따른 영어불안의 차이**

대상	빈도	N	평균	표준편차	F	sig
외국인	매일	23	2.10	.83	15.245	.000 (4>1,2,3)
	주 1-2회	21	2.44	.87		
	월 1-2회	18	2.33	.76		
	거의 없음	78	3.26	.89		
영미권외 외국인	매일	13	2.01	.96	17.523	.000 (4>1,2,3)
	주 1-2회	15	2.02	.77		
	월 1-2회	22	2.29	.62		
	거의 없음	90	3.21	.89		

Scheffé 후속검증 결과, 외국인 혹은 비영어민과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참여자가 외국인과 매일 소통하거나 주 또는 월 1-2회 정도 소통을 한다는 응답자에 비해 영어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과 영미권외의 외국인 소통빈도를 예측변수로, 영어불안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11~표 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체변화량의 약 25%의 설명력을 지닌 영미권외의 외국인과의 소통빈도가 영어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영어불안 회귀분석 결과**

영어불안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B	표준오차	Beta		
외국인 소통빈도	.178	.102	.210	1.740	.084
영미권외 외국인 소통빈도	.321	.119	.325	2.694	.008

**표 12. 영어불안 회귀분석 모형**

모델	R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표준오차
1	.507	.258	.247	.861

참고. 예측변수: 영미권외 외국인 소통빈도; 외국인 소통빈도

특히, 비영어민과의 소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미식 영어 이외의 다양한 영어 변이형에의 노출이 많고, 이러 인해 다양한 영어의 사용과 표현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세계영어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영어민과의 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영어불안에도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즉, 비영어민과의 소통 환경에의 노출이 많을수록 영어불안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 4.3 세계영어에 관한 인식과 영어 말하기 불안의 상관관계

세계 영어에 관한 인식과 영어 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록 다양한 인식에 관한 합산점수에 기초하여 상관지수가  $-.280$ 으로 낮은 지수이지만 세계영어 인식과 불안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2. 세계영어 인식과 영어불안의 상관관계 (N=140)

	세계영어	영어불안	원어민 영어불안	비원어민 불안
세계영어	1	$-.280^{**}$	$-.259^{**}$	$-.281^{**}$
영어불안	$-.280^{**}$	1	$.966^{**}$	$.965^{**}$
원어민 영어불안	$-.259^{**}$	$.966^{**}$	1	
비원어민 영어불안	$-.281^{**}$	$.965^{**}$	$.863^{**}$	1

\*\*0.01수준에서 유의함.

표 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세계영어 인식이 높을수록 원어민과 비원어민 대상 영어불안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불안과 세계영어의 인식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세계영어 인식과 변인들 간의 관계와 영어불안과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세계영어와 영어불안과의 관계를 또한 부가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결과는 앞서 표 7과 표 10에서 각각 나타난 바와 같이, 비원어민과의 소통빈도가 높을수록 세계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어불안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해보면 결국 비원어민과의 소통이 많을수록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영어불안이 낮아진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비원어민과의 소통은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그리고 영어불안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성인 영어학습자들의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과 대화상대에 따른 영어 말하기 불안을 조사하고,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과 영어불안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성인 학습자들은 다양한 영어 변이형들의 의사소통 가능성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소유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영미영어를 영어학습 표준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오랫동안 교육과 평가를 통한 영미영어 중심의 영어교육의 결과로 현장의 노력과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방식의 전환이 없이는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다. 한편, 해외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비원어민과의 소통이 빈번할수록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영어 불안감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원어민과의 소통빈도에 따른 세계영어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영어형태를 이해하면서 영어의 표준형에 대한 사고의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어 학습을 위해 원어민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모국어의 전이 현상으로 인하여 발음이나 억양에 있어 한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과 영어로 소통하거나 지도를 받는 경우 한국식 영어 발음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어 자신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화자의 악센트는 그 사회 소속감의 표시이며 따라서 화자의 정체성에 큰 역할을 한다(Levis 2005). 한국인 영어 화자들의 영어 수행 시 드러나는 한국식의 영어 악센트는 화자 자신이 한국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발음에 대한 거부와 자신감의 저하는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부적 갈등과 불안을 가져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화자에 기초한 언어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화자간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사회문화적인 정체성은 구별되어야 하며, 공용어와 모국어의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용해야 하며(김명숙 2001), 국제어로서의 영어 구사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 자체의 정확성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대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융통성 있게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세계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모든 화자들이 서로 노력하고 적응함을 전제로 한다(Choi 2011). 다방면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교류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다원화되고 다문화적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열린 소통의 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원론적 문화 이해, 자주적인 영어 사용과, 영어 불안을 줄이고 세계영어에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영어 교수자, 영어 관련 정책자, 전문가들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강성숙 · 이상기(Kang, S.-S. and S.-K. Lee). 2012.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 어 자질에 대한 한국인 영어교사의 인식 및 태도 조사: 어휘 및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A survey of Korean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the common features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Focusing on the Lexical and Grammatical Features). 《영어학》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3, 379-401.
- 김명숙(Kim, M.). 2001. 링구아프랑카로서의 영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nglish as a lingua franca: Its past, present, and future). 《영어학연구》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0, 71-90.
- 류수련. 2010. 세계영어에 대한 한국 성인 영어 학습자들의 태도와 이해도에 관한 연구(A Study of the Korean EFL Adult Learners' Attitudes and Intelligibility towards World Englishes).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송경숙(Song, K.-S.). 2011. 국제사회 영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언어태도: 세계영어들 교육을 중심으로(College students' attitude to world English). 《영어학》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1-2, 497-519.
- 송종민(Song, J. M.). 2007. 세계영어(World Englishes)의 재조명과 한국의 영어교육이 나아갈 방향(The issues in World Englishes and the future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인문학연구》(*The Journal of Humanities*) 12, 99-122.
- 손흥동. 2011. 세계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영어 다양성에 대한 태도 연구 (*The Study of Adults' Understanding on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nd Attitude of English Variation*).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심영숙. (Shim, Y.-S.) 2015. 세계영어에 대한 중등 영어교사 인식 연구(Korean EFL teachers' perceptions of world Englishes). 《응용언어학》(*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1-1, 149-172.
- 유영미 · 표경현(Yoo, Y. M. and K. H. Pyo). 2009. 원어민 교사 회화 수업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말하기 불안 연구(A study of college students' speaking anxiety in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with a native speaker teacher). 《외국어교육연구》(*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3-2, 59-84.
- 윤교찬 · 이동배(Yoon, K. and D. Lee). 2011. 탈식민주의, 세계화, 비판적 영어교육(Postcolonialism, globalization, and critical ELT). 《현대영어영문학》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5-2, 115-135
- Ahn, H. 2014. Teachers' attitudes towards Korean English in South Korea. *World Englishes* 33-2, 195-222.
- Ahn, S. 2012. *English Speaking Anxiet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eoul.
- Choe, H. 2007. Korean EFL teachers' perception of English speakers and

- varietie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4-1, 85-107.
- Choi, K. 2007. Study on students' attitude towards world Englishes and non-native English teachers. *English Teaching* 62-4, 47-68.
- Choi, S. J. 2011. A lingua franca model as a potential English education framework in Korea: College students respond.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27-4, 1-25.
- Crystal, D. 1997.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witz, E. K. 2001. Language anxiety and achievement.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1, 112-126
- Jenkins, J. 2006. Current perspectives on teaching World Englishes and English as a lingua franca, *TESOL Quarterly* 40-1, 157-181.
- Kachru, B. B. 1985.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In R. Quirk and H. G. Widdowson, eds.,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Literatures*, 11-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J. 2006. Converging grammatical properties of World Englishe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1-2, 104-128.
- Kim, Y.-K., H. Chung and S.-K. Lee. 2016.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the Asian context: Indicating and responding to non-understanding in NNS discours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6-2, 359-382.
- Lee, K.-Y. 2007. Korea English. In K.-J. Park and M. Nakano, eds., *Asia Englishes and Miscommunication*, 241-315.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Lee, K.-Y. 2010b. Korea English: Its historical, educational, sociolinguistic, and sociocultural aspects.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28-4, 67-87.
- Lee, K.-Y. 2012. Another EIL: Teaching English as an Intercultural Language (EiCL). *Language Research* 49-2, 291-310.
- Lee, S. and B. J. Yeh. 2004. Behind the intercultural conversation: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the interactions of a non-native speak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2-5, 123-138.
- Levis, M. J. 2005. Changing contexts and shifting paradigms in pronunciation teaching. *TESOL Quarterly* 39-3, 369-377.
- MacIntyre, P. D. and R. C. Gardner. 1989. Anxiet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oward a theoretical clarification. *Language Learning* 39-2, 251-275.
- Oh, S. 2011. Effects of three English accents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 listening comprehension and attitude. *English Teaching* 66-1, 39-63.
- Quirk, R. 1985. The English language in a global context. In R. Quirk and H. G. Widdowson, eds.,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Literature*, 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fakis, N. C. 2004. Teaching EIL- teaching international or Intercultural English?: What teachers should know. *System* 32-2, 237-250.
- Sir, J. S. 2011. *World Englishes: Korean EFL teachers' attitudes and their perception of distinctive grammatical feat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Tokumoto, M. and M. Shibata. 2011. Asian varieties of English: Attitudes towards pronunciation. *World Englishes* 30-3, 392-408.
- Woodrow, L. 2006. Anxiety and speak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RELC Journal* 37-3, 308-328.
- Yoon. H. 2007. Rethinking teaching goals for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1-1, 209-231.

예시 언어 (Examples in): 영어 (English)

적용 가능 언어 (Applicable Languages): 영어 (English)

적용 가능 수준 (Applicable Level): 성인 (Tertiary)

김은영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auruskim73@hotmail.com

김현욱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hokim67@ajou.ac.kr

논문 접수(Received): November 11, 2017

논문 수정(Revised): February 20, 2018

게재 결정(Accepted): March 19, 2018